

심청가의 構成形式과 傳承構造

李 憲 洪

- | | |
|----------------|-------------|
| I. 序 論 | 3. 歎息의 반복 |
| II. 本 論 | 4. 幸·不幸의 반복 |
| 1. 심청가의 반복적 構成 | 5. 심청가의 해석 |
| 2. 祝願의 반복 | III. 結 論 |

I. 序 論

판소리는 문학적인 면에서 불 때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등과 함께 口碑文學에 속한다. 구비문학 중에서도 판소리는 그 口演形態나 전승방법, 작품의 서술구조 등의 면에서 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서사무가와 함께 口碑叙事歌唱物¹⁾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전승구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그 구비전승의 현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소리는 창 의 현장에서 口演될 때 언어적 formula와 구성적 formula가 상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조를 작품 자체 내에 지니게 된다는 것이 판소리의 전승구조 일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다.²⁾

판소리에 있어서 언어적 formula란 상투적 표현단위라 말할 수 있다. 상투적 표현단위는, 음운 어휘 등에 의한 반복의 formula와 stock epithet, epic cliché, stereotyped phrase 등을 포괄하여 命名한 것이다. 필자는,

1) Oral Epic Song을 말한다 (A. B. Lord, The Singer of Tales, Atheneum, New York, 1974, pp. 4) 이는 서사무가, 서사민요, 판소리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용어이다. 가창된다는 점에서 울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울문이라는 점 만으로 구비서사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李憲洪, 판소리의 傳承構造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1. 2.)를 참조,

이 상투적 표현단위가 명과 아니리 각각의 전승의 핵을 이루며, 이야기 줄거리 단락, 삽입가요 등은 상투적 표현단위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³⁾ 구비서사가창틀인 판소리의 전승이 가능한 것은 언어의 formula인 이 상투적 표현단위와 이야기를 말하는 패턴 즉 이야기의 전개방식으로서의 구성의 formula가 상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동 구술 자동교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판소리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formula와 구성적 formula라는 兩面 중에서 本稿는 구성의 formula를 중심으로 그 전승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심청가를 그 대상작품으로 선정했다. 다시 말하면 판소리 심청가가 어떤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그것이 언어적 formula와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는 입장인 것이다.

구성형식과 전승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작품 심청가의 해석에 대한 일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text로는 이 선유本 심청가⁴⁾를 택한다.

II. 本 論

1. 심청가의 반복적 구성

A. Olrik의 epic laws 이론에 의하여 심청가의 구성 형식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⁵⁾

- 민담이나 고소설에 두루 나타나는 開話와 終話의 법칙.
- 사건과 장면 묘사 등의 반복적 구성.
- 주요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 인물의 수를 장면마다 二人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장면과 등장 인물의 법칙.

3) Ibid. pp.19~58 참조

4) 이선유, 오가전집, 韓國國樂學會, 1933.

5) A. Olrik, "Epic Laws of Folk Narrative", The Study of Folklore, ed. by A. Dundes, 1965. pp.131~141.

- 십봉사/곽씨부인, 십천/십봉사, 십청/선인, 십봉사/동네사람, 십봉사/화주승, 십청/선인, 십청/용왕, 십청/황제, 십청/십청毋 등의 등장 인물이 장면과 두 인물의 법칙에 대응하면서 남/여, 부모/자식, 인간/신적인 존재라는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대조의 법칙.
- 민담의 인과율적 논리 법칙.

등의 법칙이 십청가의 구성 형식과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십청가의 서사 전개 방식을 이루고 있는 구성 형식상의 이러한 특징들은 Bowra⁶⁾가 말하고 있는 구성의 formula에 해당된다 하겠다

구미서사가창물은 이러한 叙事法則과 이들 법칙에 관여하는 언어적 formula로서의 상투적 표현단위가 상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동구술이 가능하고 變改와 逸脫을 자체 내에서 교정하면서 전승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서사법칙 전반의 구체적 적용 검토는 後稿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십청가가 지니고 있는 구성 형식상의 두드러진 특징인 반복적 구성과 민담의 논리인 인과율적 서사 전개 등에 대해서 전승 구조와 관련 지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십청가의 구성 형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반복적 구성을 들면 幸·不幸의 반복, 祝願의 반복, 歎息의 반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작품에서 추출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들 반복 각각이 전승 구조에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반복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2. 축원의 반복

십청가의 반복적 구성으로서 우선 축원의 반복을 들 수 있다. 이를 추출 정리해 보면,

6) Bowra는 口碑叙事物의 전승구조에 대한 연구는 언어적 formula와 구성적 formula의 양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M. Bowra, Heroic poetry, London, 1952, pp.220~229)

1. 자식 접지를 축원 (→태기 있음)
「꿈바리 모은 재물 온갖 땅을 나 드린나…조왕 성주 지신제를 지극 정성
공드리니」
2. 순산을 축원(→순산함).
「고이 순산 식켜주소」
3. 심청 잘 자라기를 축원(→ 잘 자람)
「삼십삼천 도솔천…의붓듯 달붓듯 일추월장 하옵소서」
4. 부인 죽어 평토계 때의 축원 (→용궁에서 심청모녀 상봉)
「차호부인 차호부인…주과포혜 박전해여만이 먹고 도라가오」
5. 심청이 아버지 눈뜨기를 축원(→남경 선인을 만남 →눈뜸)
「간지 모월일 재자 심청은…아비눈을 받게 하옵소서」
6. 인당수로 가기 전 사당에서 축원(→다시 제사를 지낼 수 있음)
「불효여식…조풍향화를 쓴케되니 불승영모하옵내다」
- 7-1. 인당수에서 선인이 순항을 축원(→순항함)
「현원씨 배물무위…경성에무경계난상고션이아니나」
- 7-2. 인당수에서 심청이 (아버지 ^{개안} _순항)을 축원 (→개안함)
「아이고 하누님…명천이 감동하야 아비눈을 쓰옵소서…여려손님 상고님
네 평안이 기옵시고…」
(→ : 효력이 즉시 나타남)
(→ : 효력이 뒤에 나타남)

축원이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위기에 부딪치거나 또는 인
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경우에 초
월자가 가진 전지전능의 힘을 빌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월자
에게 행하는 언어적 혹은 행동적 제의의 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언어적 축원을 呪詞라 한다면, 呪詞의 성격은 환기·진술·소망에 대한
청원 내지는 명령 등으로 나타난다. 축원의 반복 모두가 상투적 표현단
위의 모임인 것은 그것이 언어적 formula에 의한 전승의 원리로 강력
히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노래로 불러지기에
도 용이하므로⁸⁾ 그 주술적 기능을 보유하면서 祭儀의 굿거리의 하나로 전
승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7) 축원의 사실은 모두가 상투적 표현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8) 전승원리를 음악적 성격에서 찾을 경우에 이런 현상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축원은 축원 각각의 사설이 지닌 언어적 formula 즉 상투적 표현단위에 의해 전승에 강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건과 장면의 표현 및 묘사를 위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축원이라는 동일 행위의 반복이므로 그것이 전승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다.

축원의 결과는 앞의 표에서 (→)로 나타낸 바와 같이 그 효과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과율에 의한 서사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탄식의 반복

심청가에 나타나는 탄식의 반복을 정리해 보면

- 1) 자식 없음을 한탄.
- 2) 딸 낳고 탄식.
- 3) 짝씨부인 죽음을 앞두고 유언 및 탄식.
- 4) 심봉사, 부인 죽자 통곡 탄식.
- 5) 심봉사, 상여 따라가며 탄식, 심청을 안고 운다.
- 6) 시주 약속 후 공양미 걱정 탄식.
- 7) 행선 전날 심청이 가산 정리하면서 통곡 탄식.
- 8) 사당 하직 후 탄식 기절.
- 9) 심봉사, 딸을 잃게 됨에 탄식.
- 10) 승상 부인 통곡 탄식.
- 11) 선인 따라가며 통곡 탄식.
- 12) 수궁에서 모녀 상봉—옛날 고생 생각, 아비 생각에 탄식.
- 13) 심봉사, 딸 잃고 자탄.
- 14) 심황후, 부친 소식 몰라 자탄.
- 15) 심봉사, 뺨터어미 도망간 줄 알고 자탄.
- 16) 옷 도적맞고 운다.
- 17) 심황후 자탄, (심봉사, 잔치에 나타나지 않음)
- 18) 심봉사, 딸 죽인 죄인이라 고백하며 탄식.

탄식의 사설도 축원의 사설과 마찬가지로 상투적 표현단위라는 언어적 formula를 이루면서 전승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탄식이라

는 동일한 행위의 반복이므로 축원의 반복과 함께 사건의 표현 및 묘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장면을 구성한다.

이렇듯 반복되는 장면은 다음에 언급할 幸·不幸의 반복과 함께 점진적이고 순환되는 사이클 형식의 서사 전개 방식⁹⁾을 이루면서 전승에 관여하는 것이다.

4. 행·불행의 반복

작품 심청가는 서사 전개상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단락의 내용이 현실적인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幸·不幸의 반복적 발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난하고 외로운 심봉사에게 현철한 부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어 불행했고, 자식을 가져 행복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그 부인을 잃게 되는 불행이 오며, 出天之孝女 심청이 이웃이나 장승상 부인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잘 봉양하는 행복함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심봉사는 개천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르는 불행을 겪는다. 마침 화주승에 의해 구출되는 행운을 얻지만 이로 인해 또 다시 공양미 삼백석이라는 실현 불가능의 부담을 지게 되는 불행이 있고, 공양미 삼백석을 구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심청이 죽어야 하는 더 큰 슬픔이 남는다.

이러한 논리는 행·불행 반복 구조 전반의 문맥적 순차관계에 의해 성립된다. 이처럼 행·불행의 반복 구조는 심청가를 이루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행·불행이 반복 교차되는 대립적인 구조는 일부의 민담에서 추출되는 행·불행의 반복적 구조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런데 심청가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이러한 행·불행의 반복 구조가 그 문맥적 순차 관계에 의한 인과적 질서 이외에 축원의 반복 및 탄식의 반복과

9) 金永一, 『巫歌의 呪詞形態와 傳承構造』, 경남대 논문집 5집, 1978, p. 67 참조

10) 趙東一, 『民譚構造의 美學的 社會的 意味에 대한 一考察』, 韓國民俗考 3집, 1970. pp. 39~54 참조.

도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불행의 반복 구조를 중심으로 축원의 반복과 탄식의 반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 당 수 이 전	1. 가난하고 외로운 심봉사. <不幸>		
	2. 현철한 딱씨부인을 만나 잘 산다. <幸> 1의 부정		
	3. 자식 없음. <不幸> 2의 부정	축원 ¹ ₂	탄식 ¹
	4. 심청이 물 낚다. <幸> (1의 부정의 부정)	축원 ³	
	5. 아내가 죽다. <不幸>	축원 ⁴	탄식 ^{3.4.5}
	6. 심청이 지효로 부친 공양, 장승상 부인의 도움. <幸>		
	7. 심봉사 개천에 빠진다. <不幸>		
	8. 화주승에 의한 구출. <幸>		
	9. 공양미 삼백석 시주 약속(불가능) <不幸>	축원 ⁵	탄식 ⁶
	10. 공양미 삼백석 구하게 되다. <幸>		
	11. 심청이 죽어야 한다는 슬픔. <不幸>	축원 ⁶	탄식 ^{7.8.9.10}
	12. 남경 선인의 추가 도움과 동네 사람의 심봉사 보호 <幸>		
	13. 인당수에서 죽는다. <不幸>	축원 ⁷⁻¹ 7-2	탄식 ¹¹
인 당 수 이 후	14. 심청이 구출되고 용궁에서 모녀 상봉 <幸>		탄식 ¹²
	15. 모녀 이별 및 현세 환생. <不幸>	이하에는 축원이 없다	
	16. 심청, 황후가 되다. <幸>		
	17. 심봉사, 심청을 이별하고 슬픔에 잠김 <不幸>		탄식 ¹³
	18. 뽕덕어미와 환락. <幸>		
	19. 뽕덕어미 가산탕전하고 도망, 심봉사의 고난. <不幸>		탄식 ^{15.16}
	20. 부녀 상봉. <幸>		

자식 점지와 순산을 기원하는 <축원 1, 2>에 의해 심청이 탄생되고 무사 양육을 비는 <축원 3>에 의해 심청은 무사히 자라게 되지만 불행히도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고 온다. 또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비는 <축원 4>는 후일 모녀가 인당수에서 상봉하게 되는 것과 딱씨부인이 사후 세계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시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축원 5>의 영향에 의해서

이다. 그리고 혼자 남겨 둔 아버지의 앞날에 대한 근심과 심청 자신의 불행한 신세를 탄식하며 조상에게 드리는 〈축원 6〉 및 인당수에서 죽기 전에 행하는 〈축원 7〉은 그 효과가 비록 간접적으로, 초월적 세계나 작품의 결말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 작품의 전체적 문맥에서 불 때 幸·不幸의 반복 구조에 인과관계로 관여되고 있다 하겠다.

심청가의 구성 형식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 구성을 세 각도에서 고찰해 보았다. 축원의 반복, 탄식의 반복, 행·불행의 반복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반복은 전승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법칙이 되고 있다. 즉 사건과 장면의 표현 및 묘사라는 구성 형태상의 반복은 자동적·결정적·순환적 서사 전개 방식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각각의 반복에 나타나는 사실들은 상투적 표현단위라는 언어적 formul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반복되는 장면에 따라 자동구술과 자동교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formula인 상투적 표현단위와 구성의 formula 중의 일부인 반복의 법칙과 민담적인 인과율의 논리 등의 법칙은 상보적 관계로 전승 구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심청가의 해석

심청가는 축원이 실제로 나타나서 작품의 스토리 전개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인당수 이전과 인당수 이후가 그것이다. 인당수에서의 투신을 분기점으로 하여 나누어지는 작품 내에서의 두 세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미는 그것이 각각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요, 후자는 초월자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인 셈이다. 인간적 현실 세계에서의 행·불행의 반복 구조는 축원의 반복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초월적 세계에서는 이 축원이 길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축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해진 더 위력적인 전지전능의 초월적 질서에 의해 전개된다.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축원의 힘이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인당수 이후의 작품 세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인간의 지배적 사고를 반증하는 인과율적 논리에 의해 설정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지성이 그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인과관계 또한 비록 간접적이거나 작품 전개상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만 인당수 이후의 세계에서의 보상은 현실 세계에서 행한 모든 축원 즉 지극 정성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전체적 보상인 셈이다.

축원의 반복은 작품의 서사적 단락에 따라 나타나는 행·불행의 반복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아 온 셈이다. 이 축원의 반복은 또, 심청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 특히 請拜와 神託이 巫儀에서 갖는 중요성을 볼 때¹¹⁾ 심청 이야기에서 축원의 반복은 반복 작각이 지닌 전승의 원리로서의 상투적 표현단위의 기능과 함께 서사무가 심청거리의 제의적 성격을 규정짓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축원의 반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청 이야기는 서사무가 굿거리의 하나로 계속 구연전승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축원의 반복 뿐만 아니라 행·불행이 반복되는 구조는 바로 심청가가 설화에서 전성된 작품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심청가의 이야기 줄거리 단락에 따라 나타나는 행·불행의 반복 구조는 그 단락 자체가 지닌 문맥상의 순차관계에 따라 그 전후의 관계가 원인·결과라는 연쇄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과율에 의한 서사의 전개는 민담의 순차적 구조의 원형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심청가의 근원설화를 민담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셈이다. 설화와의 대비에 의해서만 주장되어 온 지금까지의 심청가 근원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 축원의 반복과 행·불행 반복의 구조로써 또 하나의 裏證을 얻는 셈이 된다.

심청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현실적 고난에 부딪친 인간이 지극 정성으로 축원하고 그 정성(축원)을 행동으로 실천할 경우에는, 고난이 지고의 행복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세계관에 입각한 이야기이다.

11) 巫儀는 請拜, 神託, 送神의 단계를 갖는다. 이 중에서 巫儀의 祭儀의 기능은 정매와 신탁에서 찾을 수 있다.

인당수를 경계로 하여 전개되는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심청의 의미는 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존재¹²⁾임을 알 수 있다. 신분적으로 서민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의 사회속에서 공양미 삼백석이 의미하는 경제적 부, 황후라는 지고의 신분적 위치 등이 주는 의미는 바로 대다수 민중으로서의 꿈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인 것이다. 이처럼 심청가는 신분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대다수 민중의 꿈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한 작품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심청이 현실과 異界를 매개하는 중간자 내지는 구원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심청 이야기가 서사무가 심청거리로 지금도 구원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를 우리는 심청의 구원자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³⁾

심청곳의 서두에,

심청이 님을 착실히 불러 주면 천주유만대도 옛글에는 일컫진마는 하늘 아래 춘화명산 동구나라 춘화명산 모든 것은 다 밝게 쓰시고 이 눈을 눈병 잡병없이 그대 해 불라고……¹⁴⁾

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청을 신격으로 숭앙하는 제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심청가에서 도화동과 용궁(현세와 이제)에 대한 인식은 바로 신화에서의 하늘과 땅이라는 수직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심청가의 신화제의적 성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사무가 심청거리에서의 심청은 인간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청가에서의 효의 의미를 통과제의와 관련지어 해석하려는 원형 비평의 방법이 적용 가능한 논저도 이와 같이 축원의 반복 및 인간신으로 숭

12) 黃溟江은 朝鮮王朝小說研究(韓國研究院, 1978. pp. 175~188)에서 화해자적 존재로서의 심청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3) 巫儀의 목적은 절대자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출발된다.

14) 심청가歌(李今玉 口誦), 편자가 1980년 3월 5일에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이천리 벌신곳 현장에서 채록한 것임.

양발는 심청이라는 관점에서 찾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⁵⁾

Ⅲ. 結 論

구비서사가창물인 판소리의 전승 구조를 상투적 표현단위라는 언어적 formula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는 구성적 formula라는 두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필자는 심청가의 구성적 formula를 분석하였다. 또한 심청가의 전반적 해석 및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심청가를 구성 형식 즉 구성적 formula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A. Orlrik의 epic laws 이론이 심청가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사건과 장면의 표현 및 묘사를 위한 반복의 법칙과, 민담적인 인과율적 서사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전승 구조와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축원의 반복, 탄식의 반복, 행·불행의 반복적 구성 등은 서사의 점진적 回轉進行을 담당하고, 이를 묘사하는 언어적 formula인 상투적 표현단위의 상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自動口述과 自動矯正이 가능한 것이다
- 2) 특히 幸·不幸의 반복 구성은 주요 이야기 줄거리 단락의 순차적 구조와 일치됨으로써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는 민담의 논리인 순차적 구조의 원형이 된다고 하겠다.
- 3) 심청가는 현실적 고난에 부딪친 인간이 지극 정성으로 축원하고 그

15) 金福姬님은 심청전에서 의 孝의 의미를 세속적인 孝가 아닌 종교적 의미의 孝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論據를 작품 구성상의 모순되는 점에서 찾고 있다. (沈淸傳 主題考, 국어국 문학 84집, 1980). 그러나 京板本 심청전은 적층 문학으로서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그 구성상의 모순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鄭夏英님(贖罪意識의 文學的 展開, 서울대학교, 1974)이나 史在東님(沈淸傳研究序說, 韓國古典小說 研究論文選)이 주장하는 京板本の 소설본적 성격도 문헌적 확증이 없는 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경판본에 보이는 삽입가요의 흔적과 사건 진행상의 모순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판본의 적층문학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추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우이, 고난이 至高의 행복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세계관에 입각한 이야기인 바, 여기서 심청은 현재와 異界를 매개하는 중간자요 구원자적 존재인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심청가는 신분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당시 대다수 민중의 꿈을 현실에 구현해 보려는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다.

4) 심청가에서의 도화동과 용궁에 대한 인식은 신화에서의 하늘과 땅이라는 수직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며, 서사무가 심청거리에서의 심청이 인간신으로 숭앙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심청가를 신화제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고 하겠다'

여타 판소리 작품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後稿로 미룬다. 그리고 언어적 formula에 대한 자세한 논급은 필자의 別稿(註2)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많은 叱正 있기를 빈다.